

2020년 12월 6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가정예배순서 ♥

◎ 예배선언

이 시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49편 15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시편 49편 15절)

◎ 찬 송 / 301장(통460) 지금까지 지내온 것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3절(신약p.330)

1. 이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2.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3.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4.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5. 이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6.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7. 이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8.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9.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10.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11.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12.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13.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 말씀선포 / 디모데와 같은 사람

디모데는 사도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며 복음사역의 진실한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교회가 겪고 있는 여러 환난의 소식을 들으면서, 데살로니가교회의 성도들을 영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사역자로 디모데를 선택합니다. 사도바울은 디모데를 통해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함과 유익이 있고, 그들의 믿음이 더욱 든든히 세워지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

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고 했습니다. 사도바울은 사랑하는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을 위해 가장 믿음직한 사역자를 파송하면서 왜 다른 사람이 아닌 디모데를 보내게 되었을까요? 과연 디모데가 사도바울에게 이토록 신뢰를 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디모데는 참된 복음의 일꾼이었기 때문입니다.

- 이제 갓 태어난 데살로니가교회는 사도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직까지 초신자들의 공동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어린 교회에 박해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사도바울은 데살로니가교회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을 잃어버릴지 모른다고 염려했습니다. 그런 염려를 불식시켜주기 위해 합당한 인물로 사도바울은 디모데를 선택하고 그를 데살로니가교회에 파송합니다. 사도바울은 데살로니가교회에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디모데는 사도바울의 1차 전도여행 당시 루스드라 지역에서 맺은 전도의 열매였습니다. 사도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분노한 군중의 돌에 맞아, 죽음 직전까지 가는 혹독한 고난을 경험합니다. 사도행전 14장 5~7절에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고 했고, 19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우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고 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이러한 사도바울의 처참한 고난을 직접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바울과 같이 복음 전도의 일꾼으로 헌신한 복음의 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의 비밀을 간직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행하는 일에는 무엇보다도 헌신과 희생이 따릅니다. 직분을 감당하고, 봉사를 하며, 교사로서의 행하는 모든 사역에는 헌신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성도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복음에 대한 확신과 주신 사명에 대한 헌신의 자세를 자져야 합니다. 성도는 교회에서 주신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는 사역 공동체입니다. 장로와 집사로, 권사로 봉사자로, 또는 가르치는 자와 섬기는 자로 우리는 각기 자신의 자리에서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사명을 이루어 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 19의 상황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교회학교 모든 부장단과 교사, 봉사자들과 기도하며, 자신의 자리를 지킨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참으로 성도는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성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사명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어렵고 힘든 시기, 각자의 삶 속에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직책에 힘써 행하는 믿음의 일꾼, 천국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연약한 믿음의 지체들,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불신자들의 비참한 영적 상태를 마음 아파하시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일꾼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가정에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더욱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며, 교회에서는 주신 직분과 사명에 헌신하고, 더 나아가 새로 복음을 믿고 신앙의 길에 들어선 자들을 잘 인도 할 수 있는 믿음의 본을 보이며, 교회학교에서는 더욱 이 어려운 시대 우리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을 영적으로 돕는 일에도 헌신함으로 행하여 더욱 힘써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의 뜻을 막힘없이 진행시켜 가실 것입니다.

2. 디모데는 사도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 디모데가 사도바울에게 신뢰를 받는 중요한 이유는 그가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도바울은 빌립보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면서 교회의 사정을 진실한 마음으로 염려하고 교회를 향한 뜻을 함께할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20절 말씀에서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앎으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

이하에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고 사도바울은 말합니다. 어떤 사역이든지 하나님이 공동체 지도자에게 주신 목표를 한마음으로 협력하는 것은 연합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자세입니다. 디모데는 데살로니가교회를 염려하고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사도바울과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의 선교 보고를 들은 사도바울은 데살로니가교회의 소식에 위로를 받았다고 고백하고, 교회가 굳게 섰기 때문에 바울 자신도 살아났다고 말했습니다. 본문 7~8절입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하나님은 한 마음으로 행하는 공동체를 통해 일하십니다. 누구의 마음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내세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공동체의 연합을 깨는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결코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와 다른 생각이나 의견을 가진 지체들을 마음으로 품고 같은 마음과 같은 목적을 향해 협력하도록 겸손히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본받아 한마음으로 지체들과 협력하여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의 목표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물질의 이익과 명예와 권세를 얻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희생이 따르고,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생각이나 뜻을 먼저 앞세우고 다른 사람과 협력하지 못하는 자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연합에 아픔을 주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지금까지 주셨던 사명과 직분과 그 직책, 또 앞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모든 사역 앞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복음의 정신으로 무장하여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하루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 **찬 송 / 320장(통350) 나의 죄를 정케 하사**

◎ **폐 회 / 주기도문**